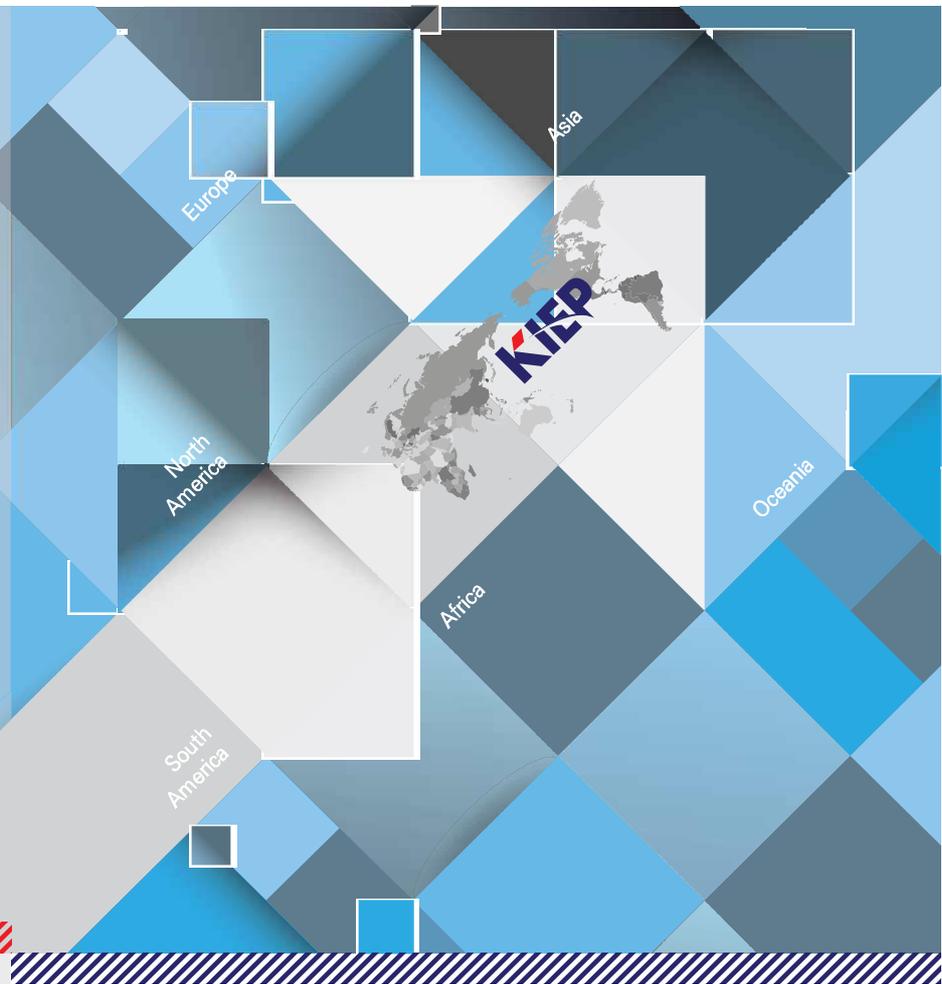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31

2018년 12월 26일



# 중국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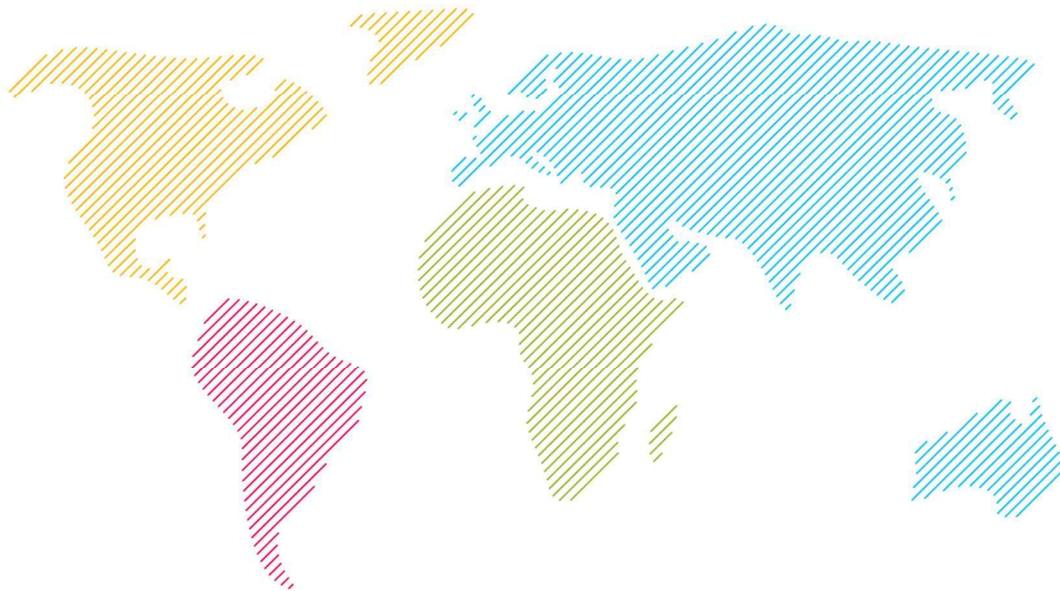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044-414-1203)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044-414-1511)

# 중국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요약

- ▶ 최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 계획과 관세 인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바, 해당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체 수입 및 한·중 FTA 세율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함.
  - 중국은 2018년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양회 등에서 자동차 및 소비재 관련 시장의 개방과 수입 확대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수입 의약품, 자동차, 소비재,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잇달아 시행
  -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 시행으로 인해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성 검토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공산품 등 총 3,25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최혜국(MFN)세율이 조정되면서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짐.
  - 관세 조정을 통해 1,449개 소비재 품목(27개 의약품 항목 포함)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15.7%에서 6.9%로 하락
  - 21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에 따라 중국 전체 완성차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8%, 부품 및 부분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6%로 인하
  - 2018년 중국 전체 세칙항목의 18.5%에 해당하는 1,585개 공산품 등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0.5%에서 7.8%로 인하
- ▶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산 농수산물공품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한·중 FTA의 이점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입 내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World Bank에서 발표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예상 수입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중국 전체 수입과 대한국 수입에서 각각 기타 제조품과 농수산물공품의 예상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 3,253개 품목 중 51.2%(1,664개 품목)의 협정세율이 중국의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높게 나타남.
    - 1,664개 중 413개 품목의 경우 2027년 적용 협정세율이 이번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여전히 낮게 나타나 한·중 FTA 효과의 축소가 간접적으로 예상됨.
-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전략의 연계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 추진 관련 분야에서 중국 국내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 수입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추진이 전망됨.
  - 한국이 참여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발굴 및 협력 기회 모색이 중요하며 더불어 고급화, 다양화되는 중국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생태계 조성에 참여의 기회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상품무역에서 한·중 FTA 이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출 및 상호 협력 확대가 중요함.



## 차 례

1. 연구 배경
2. 수입 현황과 관세 인하 조치 내용
  - 가. 소비재
  - 나. 의약품
  - 다. 자동차
  - 라. 공산품
3. 관세 인하 조치의 효과 분석
  - 가. 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 1) 전체 수입
    - 2) 대한국수입
  - 나. 한·중 FTA 효과성 검토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연구 배경

■ 중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비재 및 자동차, 공산품 관련 수입관세 인하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발표함.

- 2017년 12월 187개 소비재 품목의 잠정세율을 조정하는 문건(「关于调整部分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을 발표함.
- 2018년에는 의약품, 자동차, 소비재,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잠정세율과 최혜국(MFN)세율 방식으로 조정함.
  - 2018년 1월 948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 잠정세율 조정 조치(关于2018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에 이어 4월 개최된 4차 상무회의에서는 의약품 2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잠정 인하하기로 결정(「关于降低药品进口关税的公告」)하고 5월 1일부터 적용
  - 2018년 5월과 6월에는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입관세(「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와 1,449개 소비재 품목의 수입관세(「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를 최혜국세율 방식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발표
  - 2018년 9월 30일 1,585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关于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的公告」)를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조정된 최혜국(MFN) 세율을 적용

■ 최근 중국정부는 역내외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자동차 및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 인하 계획 발표)과 4월 보야오 포럼(대외개방 확대와 자동차 시장 외자 지분규제 철폐 및 수입관세 인하) 등에서 시장개방 및 수입확대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2018년은 대외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정부는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와 사회발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초안을 통해 소비 확대 및 전면적 개방 확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함.
  - △ 녹색소비 △ 스마트홈·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정보소비(信息消费)의 비중 제고를 통한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 디지털 소비 활성화 △ 신소비 모델의 육성 추진 및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세금 우대연장 등 소비 확대 정책 시행
  - 또한 무역의 균형적 발전 및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sup>1)</sup>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sup>2)</sup>하며 다양한 방식의 국제경제협력<sup>3)</sup>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의 개방을 지속 추진할 예정
- 2018년 3월 양회 기자회견에서는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이 자동차 및 일부 소비재와 관련하여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 지원 계획을 언급하기도 함.

1) △ 수출입 균형 발전 △ 서비스무역 확대 △ 새로운 업종과 방식의 무역 육성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등을 통해 무역강국 건설 △ 첨단기술·장비제조·독자브랜드 제품의 수출 장려 △ 자동차·일부 생활 소비품 등의 수입관세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개방 확대를 위해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행 △ 금융·통신·교육 등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추진을 밝혔으며,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함.  
 3) 보야오 아시아포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및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다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대일로 건설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그중 2017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시장 개방과 글로벌 무역 촉진을 목표로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임 [新华网(2018. 3. 11), 「商务部部长钟山: 中国国际进口博览会是各个国家的“大合唱”」,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11/c\\_1122520132.htm?baik](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11/c_1122520132.htm?baik)(검색일: 2018. 3. 14)].

- 2018년 시행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많은 품목의 최혜국(MFN)세율이 조정되어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아진바<sup>4)</sup>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중 FTA 협정 세율의 효과성 점검과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중국이 시장개방 및 구조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비롯하여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입관세 인하조치의 대상 품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중 FTA세율과 이번 에 발표된 조정 세율과의 비교도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자료에서는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관련 시장 현황을 살펴본 후 중국시장의 수입탄력성을 기반으로 예상 수입증가율을 검토하고, 한·중 FTA와의 세율 비교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함.
- 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2장을 각 조치별로 비중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공산품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함.

### 글상자 1. 중국의 주요 수입관세율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 최혜국대우(MFN)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잠정세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세의 적용은 특별관세 → 협정세율(FTA 관세, WTO 양허관세 등) → 할당관세 → 특혜세율 → 잠정세율 → 기본세율의 순서로 부과됨(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특혜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관세율 종류	적용 범위
보통세율	○ 관세우대 협정 및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최혜국(MFN)세율	○ 최혜국대우조건을 포함한 호혜협정을 체결한 대상국가의 수입품과 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상호 호혜적으로 시행하는 관세율
협정세율	○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규정되는 우대 관세율로 일반적으로 최혜국세율보다 낮고 협정이나 조약의 유효기간 내 조약국 동의 없이는 세율의 자동 갱신이나 폐지가 불가능 ○ FTA세율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혜 관세율 ○ APTA(아태협정)세율은 아시아-태평양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특혜세율	○ 특정 국가 및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수 관세로서 최혜국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원칙을 근거로 특혜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아시아·태평양 2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과 아세안 3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37개국이 포함됨.
잠정세율	○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적용하는 관세율로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한해 부과하며 잠정세율이 있는 상품의 경우 최혜국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자료: 中国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知识(<http://gss.mof.gov.cn/mofhome/guanshuisi/zhuantilanmu/guanshuizhishi/>); Trade Navi, 국가별 관세 안내(<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PG0000001034&natnCd=CN>).

4) 중국의 전체 수입관세율 수준은 2018년 관세 인하 조치 시행 이전까지는 9.8%였으나 일련의 조치 시행으로 7.5% 수준으로 내려감(人民网(2018. 9. 30), 「11月1日起我国降部分商品最惠国税率关税总水平将降至7.5%」,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930/c1001-30323957.html>).

## 2. 수입 현황과 관세 인하 조치 내용

### 가.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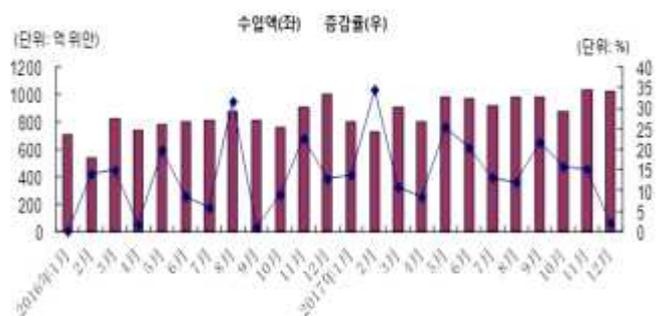
-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수입 소비재<sup>5)</su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 소비재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1조 위안 수준을 넘어섬.
  - 2017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액이 처음으로 1조 1천억 위안을 넘어서며 중국 전체 수입의 8.8%를 점유하였고 일반 무역<sup>6)</sup> 방식의 소비재 수입 규모는 총 7,933.5억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수입의 72.2%를 차지함.
  - 주요 수입 소비재에는 승용차, 의료·보건용품과 식품류, 화장품 등이 포함
  - 2017년 기준 승용차 수입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3,382억 위안을 기록하며 중국 전체 소비재 수입의 30.8%를 차지하였고 의료·보건용품 수입액은 1,421.6억 위안(전년대비 23.1% 증가), 식품류 559.5억 위안(전년대비 19.6% 증가), 화장품 437.2억 위안(전년대비 48.6% 증가)을 기록
  -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개성을 중시하는 수입 제품의 소비가 증가함.<sup>7)</sup>
  - 최근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의 소비재 수요·공급 현황 분석자료(‘主要消费品供需状况统计调查分析报告’)에서는 수입 상품이 높은 소비수요에 힘입어 시장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sup>8)</sup>
  -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의류 및 신발, 화장품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수입상품 구매 결정시에는 안전, 가격, 품질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중국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3-2017年度数据』.

그림 2. 소비재 수입 추이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18. 1. 31), 「2017年我国消费品进口值首次突破1万亿元」(进出口监测预警专题).

5) 해당 소비재(消费品)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소비재 개념을 따르며, 식품, 의복·신발, 일용화학용품, 전자전기, 가구, 교통수단, 문화오락제품 등 7개 분류의 품목이 포함됨[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18. 1. 31), 「2017年我国消费品进口值首次突破1万亿元」(进出口监测预警专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4/jcyjfxwz/jcyjfxwz39/1454464/index.html>].

6) 중국의 수입은 무역방식별로 크게 일반무역과 가공무역,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일반무역은 중국의 내수용 수입에 해당함.

7)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18. 1. 31), 「2017年我国消费品进口值首次突破1万亿元」(进出口监测预警专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4/jcyjfxwz/jcyjfxwz39/7532074b-3.html>.

8) 中国政府网(2018. 5. 29), 「商务部发布调查报告显示-消费升级快 进口需求旺」, [http://www.gov.cn/zhengce/2018-05/29/content\\_5294364.htm](http://www.gov.cn/zhengce/2018-05/29/content_5294364.htm).

- 2018년 5월 31일 중국은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를 통해 1,449개 품목의 수입관세율 조정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발표함.
- 이번 조치로 수입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1,449개로 중국 소비재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의류 및 신발, 문화·체육용품, 가전, 식음료, 일용화학용품, 의약·보건용품 등이 포함됨.
  - 의류·신발·모자, 가구, 문화·체육용품 등 총 894개 품목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이 15.9%에서 7.1%로 낮아졌으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기기 98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20.5%에서 8%로 대폭 조정
  - 수산물과 식음료류 387개 품목의 평균 세율이 15.2%에서 6.9%로 8.3%p 감소하였고 일용화학용품과 의약·보건용품 총 70개 품목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이 8.4%에서 2.9%로 인하
  - 세율 인하 대상 1,449개 소비재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15.7%에서 6.9%로 약 55.9% 인하<sup>9)</sup>
- 중국정부의 소비재 관세 인하 조치는 2015년 5월 21일 '일부 소비재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部分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이후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품목 범위와 조정방식에서 기존과 차이를 보임.
- 중국은 해외소비의 내수 전환(吸引海外消费回流)과 주민의 소비수요 충족을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 소비자의 해외구매율이 높거나 단기간에 중국산으로 대체 공급할 수 없는 높은 품질의 제품,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품목의 잠정세율을 조정함.<sup>10)</sup>
  -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경우, 이전보다 7배나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최혜국(MFN)세율 조정 방식을 택함으로써 최근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도적 대외개방 확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함.<sup>11)</sup>

표 1. 중국의 주요 소비재 수입관세 조정 조치 내용

문건명	발표일시 (적용일시)	내용	조정 방식
일부 소비재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 (关于调整部分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2015.5.21 (2015.6.1)	· 스킨케어, 모직의류, 신발, 기저귀 등 14개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을 조정 · 조정 전 7.5~24%이던 소비재의 최혜국(MFN)세율을 2~12%의 잠정세율로 인하 조정	잠정세율
2016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2016年关税调整方案的通)	2015.12.4 (2016.1.1)	· 총 787개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소비재는 핸드백, 의류, 머플러, 진공보온컵 등 16개 품목이 포함 · 그중 14~23%였던 정장과 모피의류의 수입관세가 7~10%로 떨어졌고 기저귀의 수입관세율은 7.5%에서 2%로 낮아짐.	잠정세율
2017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2017年关税调整方案的通)	2016.12.19 (2017.1.1)	· 총 822개 수입관세율 조정 품목 중 소비재는 참치, 복극 새우, 크랜베리 등 16개 품목이 포함	잠정세율

9) 中国经济网(2018. 6. 8), 「我国日用消费品进口关税平均降幅55.9%」,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1806/02/t20180602\\_29315120.shtml](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1806/02/t20180602_29315120.shtml).

10) 贸易金融杂志(2017. 12. 28), 「财政部12月新规:降低部分消费品进口关税」, <http://www.tradefinance.com.cn/?a=news&id=2845>.

11) 中国政府网(2018. 6. 2), 「降低进口关税影响几何」, [http://www.gov.cn/zhengce/2018-06/02/content\\_5295629.htm](http://www.gov.cn/zhengce/2018-06/02/content_5295629.htm).

표 1. 계속

문건명	발표일시 (적용일시)	내용	조정 방식
일부 소비재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 (关于调整部分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2017.11.27 (2017.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87개 소비재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7.3%에서 7.7%로 55% 가깝게 인하</li> <li>주요 인하 품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약품, 향수 및 에센스, 전기온수기(电热饮水机), 일상생활용품(日化用品) 등</li> <li>조정 전 4~32%이던 소비재의 최혜국(MFN)세율이 2~16%의 잠정세율로 인하여 적용</li> </ul>	잠정세율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2018.5.31 (201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449개 소비재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7.3%에서 7.9%로 50% 넘게 감소</li> <li>수입관세 조정 후 의류 및 신발, 모자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7.1%로 낮아졌으며 세탁기 등 가전의 수입관세율은 평균 8%, 수산품은 6.9%, 화장품 등은 2.9%로 인하</li> </ul>	최혜국 (MFN) 세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5. 5. 21), 「关于调整部分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5. 12. 4), 「关于2016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6. 12. 19), 「关于2017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7. 11. 22), 「关于调整部分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8. 5. 31),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中国日报(2018. 6. 1), 「中国将大幅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代购们着急了」; 中国会计视野(2018. 6. 10), 「3年多4次降低进口日用消费品进口关税为了啥?」.

## 나. 의약품

■ 2017년 중국의 의약품 소비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부상했으며, 수입 의약품에 대한 소비와 수입도 확대되고 있음.<sup>12)</sup>

- 2010년 5조 8,056억 위안 수준이던 중국의 의약품 소비시장은 2013년 11조 위안 규모를 넘어선 후 꾸준히 확대되어 2017년에는 2010년 대비 2.6배 늘어난 15조 861억 위안 규모로 성장함.
  - 그중 양약 및 한방 약품에 대한 소비는 2010년 2,980억 위안 수준에서 2017년에는 약 3.2배 늘어난 9,482억 위안까지 확대되었으며 비중 역시 5.1%에서 6.3%로 1.2%p 증가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의약품 소비시장은 건강에 대한 수요의 제고, 인구구조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배경하에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음.<sup>13)</sup>
  - 다만 최근 의약품 영차율<sup>14)</sup> 범위 확대, 의료보험료 조절, 의약품입찰가 인하, 집중구매가격 협상, 의료보험가격 협상 등 여러 가지 종합적 의료개혁 조치 추진<sup>15)</sup>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12) 新浪财经2018. 7. 7), 「我国是世界第二大医药消费市场 美国为高价药的天堂」,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8-07-07/doc-ihexfcvk9891779.shtml>.

13) 中国新闻网(2018. 8. 15), 「中国药品市场规模 将达1.71万亿元」, <http://www.chinanews.com/jk/2018/08-15/8600616.shtml>.

14) 영차율(零差率) 제도는 병원이 구매 약품에 일정 퍼센트의 이윤을 덧붙여 파는 것을 국가가 금지하는 한편 병원의 이윤 손실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완해주는 제도를 의미함[장영석(2007), 「중국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조화 발전 방향」, p.116].

15) 21财经(2017. 8. 18), 「2017年年中国药品市场将超1.57万亿 增速回归理性」, <https://m.21jingji.com/article/20170818/herald/2513f73a6055aaf4d2e88b32da7ebcdf.html>.

표 2. 중국 의약품 소비시장 추이

(단위: 억 위안,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판매액	58,055.7	78,163.8	93,330.0	110,703.9	124,971.1	133,890.9	145,073.1	150,861.3
양약·한방약품 판매액	2,980.1	3,717.6	4,813.6	5,923.5	6,960.4	7,895.5	8,460.4	9,481.5
비중	5.1	4.8	5.2	5.4	5.6	5.9	5.8	6.3

주: 1) 수치는 규모이상 기업의 상품(commodity retail) 판매를 기준으로 함.  
 2) 비중은 규모이상 기업의 상품 소비에서 양약 및 한방 약품에 대한 소비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年度数据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의약품 수입 역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완제의약품(HS 3004) 완제의약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중국의 완제의약품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3개국만 전체 완제의약품 수입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

그림 3. 중국 의약품 수입 추이



주: 의약품은 원료의약품(HS 3003)과 완제의약품(HS 3004) 품목을 기준으로 함.  
 자료: K-stat 중국통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중국 완제의약품 주요 수입국(2017년)



주: 2017년 국가별 완제의약품(HS 3004)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K-stat 중국통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4월 23일 중국 재정부는 '의약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药品进口关税的公告」)'를 통해 28개 수입 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여 소비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

- 중국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의약품 중 특히 항암제 소비 부담 경감과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를 위해 의약품 관세 인하를 단독으로 하는 조치의 시행을 결정함.
- 재정부 관세사(关税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일부 수입 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약품 공급 및 국내의료 수준 제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sup>16)</sup>

16) 新华网(2018. 4. 24), 「财政部: 5月1日起取消28项药品进口关税」,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24/c\\_1122730142.htm](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24/c_1122730142.htm)(검색일: 2018. 7. 10).

- 해당 조치는 잠정세율 조정 방식을 통해 항암제가 포함된 일반 약품과 항암작용의 알칼로이드 약품 및 수입 한방제제(有实际进口的中成药)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함.
- 의약품의 HS 코드는 3003(원료의약품)과 3004(완제의약품)에 해당<sup>17)</sup>하며 4월에 시행한 중국정부의 관세 조정 조치는 HS 3004에 해당하는 소매용 완제의약품 중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 다만 잠정세율로 조정되었던 품목 중 27개가 5월 31일 발표된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어 최혜국(MFN) 세율 자체가 0%로 인하 조정

■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의약품의 관세 인하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및 안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중국산 의약품 관련 불량백신 논란<sup>18)</sup>과 원료의약품 내 발암성 물질 검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정성 우려로 국내의 시장에서 리콜이 잇따르고 있어 의약품 수출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정부기관의 감독 강화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sup>19)</sup>

## 다. 자동차

■ 중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 및 세단, SU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독일계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중국 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이 총 121.6만 대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6.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sup>20)</sup>
  - 2017년 큰 폭의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이어졌던 수입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한 데에서 나타난 기저효과가 반영된 동시에 병행수입의 빠른 증가와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서 기인
- CEIC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수입차는 4.2%(2016년 3.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SUV는 전체의 35.5%(2016년 32.3%)로 점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자동차유통협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수입차 판매량은 총 90.4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0.6% 증가하여 소폭의 회복세를 시현
  - 2017년 중국의 완성차 수입 내 10대 수입차 브랜드를 살펴보면 수입량 약 122만 대 가운데 독일계(BMW, 벤츠)의 점유율이 30.5%로 가장 높은 수준

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아이앤아이알앤씨(2016), 「2016년 의약품 산업경쟁력 조사」, p. 23.

18) 연합뉴스(2018. 7. 26), 「中 영터러 백신 파동 '일파만파'...제조업체 조업중단·일제점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6/0200000000AKR20180726107300097.HTML>.

19) 연합뉴스(2018. 8. 9), 「중국산 의약품 '비상등'...국내외 시장에서 잇단 리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9/0200000000AKR20180809090600097.HTML>.

20)中国经济网(2018. 2. 6), 「2017年汽车进口超120万辆 平行进口增长近三成」, [http://auto.ce.cn/auto/gundong/201802/06/t20180206\\_28067075.shtml](http://auto.ce.cn/auto/gundong/201802/06/t20180206_28067075.shtml).

그림 5. 중국의 자동차 수입 추이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国际机车股份有限公司(2018), 2018年一季度中国进口汽车市场情况.

그림 6. 상위 10개 수입차 브랜드별 점유율(2017년)



주: 점유율은 중국 전체 자동차 수입에서 브랜드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国际机车股份有限公司(2018) 및 KOTRA(20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5월 22일 중국 재정부는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부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를 발표하고 HS 8단위 기준 218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큰 폭으로 조정함.

- 중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수입세목(총 275개)<sup>21)</sup>의 79.3%에 해당하는 21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
  - 완성차 품목(HS 8702~8707)의 경우 25%의 기존 세율이 적용되던 품목 135개와 기존 세율 20%의 품목 4개를 합한 총 139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15%로 조정, 부품 및 부분품(HS 8708)의 경우 기존 수입관세율 8%, 10%, 15%, 20%, 25%의 79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6%로 일괄 조정
  - 관세 인하 조치 후 완성차와 부품 및 부분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각각 13.8%와 6.0%로 인하<sup>22)</sup>
- 218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의 최종 지출 가격이 약 8~15% 감소하고 수입차 판매량도 이전 100~120만 대 규모에서 150~200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sup>23)</sup>

■ 2018년 5월 22일 발표된 중국의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 조정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최혜국(MFN)세율 방식을 통한 관세 조정이자 시장개방 조치로 정부의 최근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중국은 1986년 이후 1994년 4월 105개 세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처음 인하하였고 1997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관세를 조정하였으며 12년 만인 2018년 가장 넓은 범위(총 21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함.

21)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8. 5. 22),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有关负责人就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答记者问」,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jiedu/201805/t20180522\\_2904010.htm](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jiedu/201805/t20180522_2904010.htm).

22) 新华网(2018. 5. 23), 「财政部: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 [http://www.xinhuanet.com/finance/2018-05/23/c\\_1122871974.htm](http://www.xinhuanet.com/finance/2018-05/23/c_1122871974.htm).

23) 新浪汽车(2018. 5. 22), 「我国汽车整车进口关税税率下调至15%车价或下降8%」, <http://auto.sina.com.cn/zz/sh/2018-05-22/detail-ihawmaua9014472.shtml>.

- 5월 수입관세 인하 조치에 앞서 2018년 4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 및 특수목적 차량과 상용차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시장 개방 로드맵을 제시함.
  - 해당 로드맵에서는 2018년 전용차(专用车)와 신에너지 자동차, 2020년 상용차(商用车), 2022년 승용차(乘用车)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 폐지와 함께 합자·합작기업 수 제한(2개 이상 금지)의 폐지 계획을 발표<sup>24)</sup>
- 특히 이번 218개 완성차 및 관련 부품·부분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프리미엄 브랜드 및 고급 차종에 대한 수요 증가의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반영된 조치임.

표 3. 중국의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 조정 내용

적용일	내용
1994.4.1	· 수입 자동차에 대한 첫 번째 세율 조정 조치로서 175개 자동차 관련 세목 중 105개 품목의 관세 인하(稅率平均降低13个百分点)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110%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50%로 조정
1997.10.1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80%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100%로 조정
2001.1.1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70%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80%로 조정
2002.1.1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43.8%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50.7%로 조정
2003.1.1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38.2%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43%로 조정
2004.1.1	· 배기량 3.0 이하 수입 자동차 관세 34.2%로 인하, 배기량 3.0 이상 차량의 수입관세율 37.6%로 조정
2005.1.1	· 수입 자동차 금액에 따른(配額) 허가증제도 폐지, 자동차에 대해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수입 자동차 관세율을 30%로 낮춤.
2006.1.1.	· 2006년 1월 1일부터 WTO의 관세양허 이행약속에 따라 100여 개 세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28%로 조정
2006.7.1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公告(2006年第37号) · 2006년 7월 1일 9번째 조정으로 중국의 수입 완성차 관세율은 25%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수입 자동차 부품·부분품 관세는 10%로 인하
2018.5.22 (2018.7.1)	·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부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에 따라 총 218개의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최혜국(MFN)세율) 인하 · [완성차] 25%, 20% → 15%로 조정 · [부품·부분품] 8%, 10%, 15%, 20%, 25% → 6%로 조정

자료: 新浪财经(2018. 2. 3), 「汽车进口关税将下行 或由25%降至15%」;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2018. 5. 22),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 중국정부는 로컬 브랜드의 높은 핵심 부품 수입의존도, 낮은 수익률 및 기술 경쟁력 문제 등의 중요 이슈 해결을 위해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기술유입과 시장경쟁 강화를 촉진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판매 국가이지만 로컬 브랜드들은 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의 국산화율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저가 차량 위주의 완성차 생산, 판매, 수출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수익률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수입 확대에 따른 시장 내 경쟁을 도모하고 메기효과(catfish effect)<sup>25)</sup>를 통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 개혁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 경쟁

24) 新华网(2018. 4. 17), 「我国将通过5年过渡期取消汽车行业外资股比限制」,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17/c\\_129852493.htm](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17/c_129852493.htm).

25)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메기를 넣어 미꾸라지들의 활동성을 높임으로써 생존시키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것이 메기효과(catfish effect)임. 다면평가제도와 진급제도, 직무심사와 성과급제도, 신진세력 투입 등 제도를 통해 조직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국 완성차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라. 공산품(工业品)

■ 2018년 9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的公告」)'를 발표하고 HS 8단위 기준 1,585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큰 폭으로 조정함.

- 중국 국무원은 9월 26일 상무회의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원가 절감, 다양한 소비수요 대응을 위해 중국 국내 수요가 큰 전기기계(机电)설비, 방직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세율 인하를 결정하고 30일 관련 공고를 발표함.
- 중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2018년 전체 세칙항목(税则项目) 총 8,549개<sup>26)</sup>의 1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평균 10.5%에서 7.8%로 인하함.<sup>27)</sup>
- 1,585개 품목에는 주로 방직품, 건축자재,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전기기계설비(금속가공기계, 방직기계, 공작기계, 변압설비, 전기기자재, 계측기) 및 부분품, 에너지·자원 품목 및 1차 가공품(비금속광물, 무기화학품, 목재, 제지품, 보석) 등이 포함됨.
  - 기계전기설비 및 부분품의 경우 평균 수입관세율이 12.2%에서 8.8%로 낮아졌으며, 방직품과 건축자재의 수입관세는 평균 11.5%에서 8.4%로 조정, 제지품 등 에너지·자원 품목 및 1차 가공품은 6.6%에서 5.4%로 평균 수입관세율이 인하<sup>28)</sup>

■ 앞서 시행되었던 조치<sup>29)</sup>들과 달리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은 공산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7월 시행된 수입관세 인하 조치가 주로 주민 소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11월 관세 인하 조치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 크게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중국 관세자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및 부분품, 원재료 등 공산품의 수입관세율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sup>30)</sup>
- 품목별로 살펴보면, 1,585개 관세 인하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섬유제품(26.9%, 426개)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16.4%, 260개)과 통용설비(8.4%, 133개)가 그 뒤를 이었고 3개 품목 비중의 합은 51%를 상회함.

높임(한경 경제용어사전).

26)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7. 12. 12),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18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15\\_2777552.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15_2777552.html).

27) 中国政府网(2018. 9. 30), 「11月1日起我国降部分商品最惠国税率关税总水平将降至7.5%」,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9/t20180930\\_3033435.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9/t20180930_303343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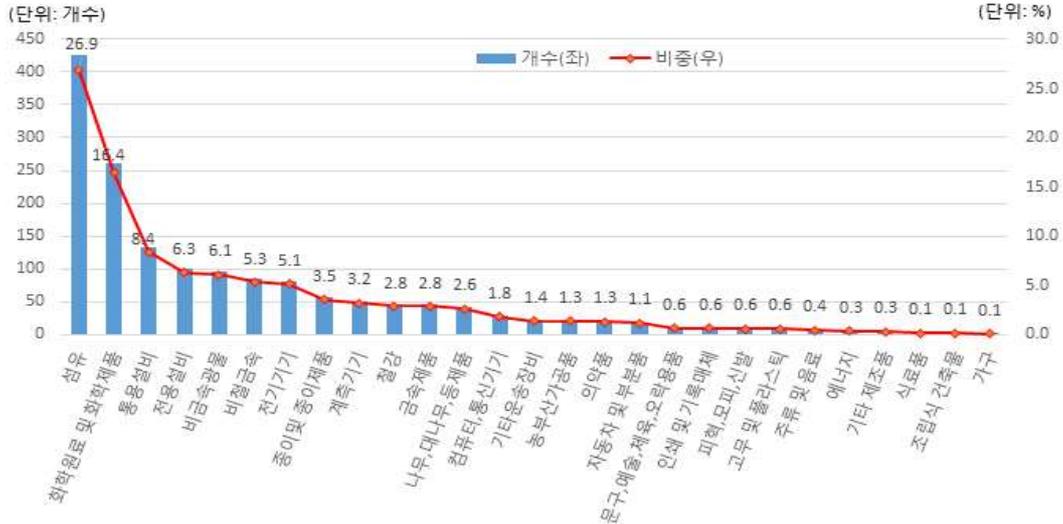
28) 中国政府网(2018. 9. 26),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确定推动外商投资重大项目落地 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和加快推进通关便利化的措施等」, [http://www.gov.cn/guowuyuan/2018-09/26/content\\_5325538.htm](http://www.gov.cn/guowuyuan/2018-09/26/content_5325538.htm).

29)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된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부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30) 新京报网(2018. 10. 1), 「1585个税目商品11月起降进口关税」, <http://www.bjnews.com.cn/finance/2018/10/01/508937.html>.

- 이외에도 전용설비, 비금속광물과 비철금속, 전기기기 등 공업제품이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다수 포함

그림 7. 1,585개 관세인하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주: 11월 1일부터 수입관세율이 인하 조정되는 1,585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中国财政部(2018), 「关于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的公告」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1월부터 시행되는 수입관세 인하는 1,585개 품목의 다수의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산업고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공급측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첨단기술과 자본·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은 유효공급 부족과 함께 과도한 무효공급(无效供给) 제거 등의 과제에 직면
  - 시장이 주체가 되어 우수한 품질의 선진기술장비 및 부품과 에너지자원 등의 중요 생산요소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생산요소 구조 최적화와 효율 개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의미
- 이에 중국정부는 공산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공급능력 제고, 자원배분 문제 해결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개선하고자 함.<sup>31)</sup>
- 수입관세의 인하로 인한 시장압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중국정부는 경쟁력 확보 및 제고를 위한 관련 기업의 자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칙위원회는 세율 조정 이전에 산업 및 업계 협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상품의 관세 인하 폭을 결정함에 있어 업/다운 스트림(up/down stream) 업계 이익을 모두 고려
  - 다만 적절한 수준의 수입관세 인하는 해외 선진기술설비 도입과 유효공급의 확대를 통한 △ 중국의 산업고도화 △ 견전한 경쟁 조성 △ 관련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및 공급품질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인 고도화 추진, 품질과 효율 개선, 혁신발전을 통한 대응 가속화 등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

31) 新京报网(2018), 「1585个税目商品11月起降进口关税」, <http://www.bjnews.com.cn/finance/2018/10/01/508937.html>.

### 3. 관세 조정의 효과 분석

#### 가. 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 1) 전체 수입

■ 중국의 전체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전 세계 수입의 14.5%를 차지하여, 세계 2위 수입국으로 부상함.

- WTO가 발표한 주요 71개국의 교역실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위 수입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2조 4,090억 달러)의 76.5%이며,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2017년까지 연평균 수입증가율(13.5%)이 세계 수입증가율의 2배에 달함.<sup>32)</sup>
- 한편 2017년 기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한국(1,773억 달러)으로 전체 수입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 일본(1,650억 달러, 9.2%), 대만(1,552억 달러, 8.7%), 미국(1,497억 달러, 8.4%), 독일(966억 달러, 5.4%)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임(표 4 참고).

표 4. 중국의 국가별 수입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세계	6.8	100.0	세계	1.1	100.0	세계	-18.4	100.0	세계	-4.9	100.0	세계	17.5	100.0
1	한국	7.7	9.2	한국	6.1	9.7	한국	-8.4	10.9	한국	-8.9	10.4	한국	11.7	9.9
2	일본	-10.5	8.2	일본	2.3	8.3	대만	-5.1	9.0	일본	1.8	9.5	일본	13.6	9.2
3	대만	13.7	7.7	미국	6.1	7.8	미국	-6.0	9.0	대만	-3.2	9.2	대만	11.0	8.7
4	미국	12.9	7.4	대만	1.3	7.8	일본	-12.3	8.9	미국	-8.0	8.7	미국	13.0	8.4
5	독일	1.9	4.8	독일	11.7	5.3	독일	-16.5	5.5	독일	-1.6	5.7	독일	12.2	5.4
6	호주	16.3	4.7	호주	-1.4	4.6	호주	-27.7	4.1	호주	-2.5	4.2	호주	35.5	4.8
7	말레이시아	1.1	3.0	말레이시아	-5.3	2.8	말레이시아	-4.6	3.3	말레이시아	-7.9	3.2	브라질	28.4	3.3
8	브라질	2.8	2.8	브라질	-2.9	2.6	브라질	-14.6	2.8	브라질	2.3	3.0	말레이시아	10.8	3.0
9	사우디아라비아	-2.9	2.7	사우디아라비아	-8.7	2.5	태국	-2.6	2.3	태국	3.9	2.5	태국	8.2	2.3
10	홍콩	296.2	2.2	러시아	5.6	2.1	러시아	-20.2	2.1	러시아	-4.0	2.1	러시아	28.3	2.3

자료: K-stat 중국통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2) 新华网(2018. 6. 28), 「中国与世界贸易组织白皮书」,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6/28/c\\_1123050189.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6/28/c_1123050189.htm).

■ 2017년 중국의 상위 50개 수입품목(HS 6단위 기준)은 전체 수입의 57.6%를 차지하였으며 반도체가 15.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함.

- 2012~14년까지의 수입 상위 50개 품목의 비중 합계는 6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57% 이하로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17년 비중과 품목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로 수입 비중이 2015년 15%를 넘어선 이후 2016년 16.0% 까지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0.8%p 줄어든 15.2%를 기록하며 2012년 11.3%보다 4.9%p 상승
- 2017년 2위를 기록한 석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2012년 14.0%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2016년 비중이 8.5%까지 대폭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9.9%로 비중을 다소 회복하였으나 2012년의 수준을 하회
- 2015년과 2016년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비중 축소는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입 축소와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표 5. 중국 상위 50개 수입품목 비중 추이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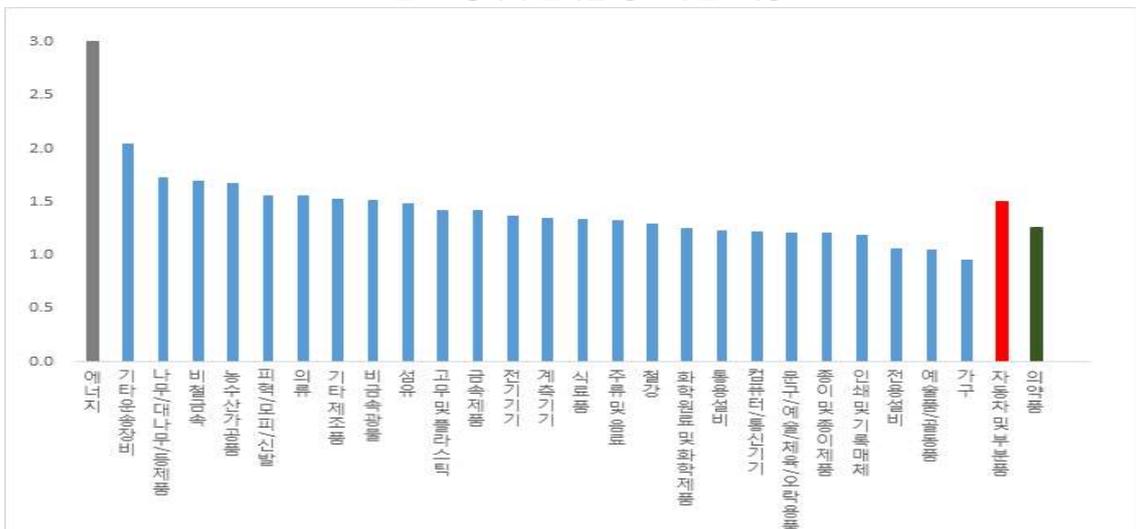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품목 수	비중										
<b>총합계</b>	<b>50</b>	<b>60.9</b>	<b>50</b>	<b>62.0</b>	<b>50</b>	<b>61.2</b>	<b>50</b>	<b>56.7</b>	<b>50</b>	<b>56.7</b>	<b>50</b>	<b>57.6</b>
반도체	6	11.3	7	12.9	6	11.9	6	15.4	6	16.0	6	15.2
석유 및 석유제품	3	14.0	2	12.6	3	12.9	2	9.0	3	8.5	3	9.9
금속광물	4	6.5	3	6.5	2	5.8	2	4.7	2	5.0	2	5.6
무선통신기기	3	2.4	3	2.7	3	2.5	3	3.3	3	3.4	3	3.3
자동차	2	2.3	2	2.3	2	2.8	2	2.5	2	2.6	2	2.5
동식물성유지	2	2.3	2	2.2	1	2.1	1	2.2	1	2.2	1	2.2
LCD	2	3.0	2	2.8	1	2.2	2	2.8	2	2.4	1	1.7
가스	2	0.9	2	1.1	2	1.2	3	1.4	3	1.4	3	1.7
전자부품	2	1.2	2	1.1	2	1.1	3	1.6	3	1.6	3	1.5
구리제품	1	1.5	2	1.5	1	1.3	1	1.3	1	1.2	2	1.4
우주, 항공	1	0.8	1	1.0	1	1.3	1	1.5	1	1.3	1	1.3
자동차부품	2	0.9	2	0.8	3	1.2	3	1.3	3	1.5	2	1.2
컴퓨터	1	1.4	1	1.0	1	1.0	1	1.1	1	1.2	1	1.0
석탄제품	1	1.0	1	1.0	1	0.8	1	0.5	1	0.6	1	0.9
F(미분류)	1	3.8	1	5.0	1	4.2	-	-	1	0.7	1	0.8
컴퓨터부품	1	0.9	1	0.9	1	1.0	1	1.0	1	0.8	1	0.8
전자공업기계	-	-	-	-	-	-	2	0.5	2	0.6	2	0.7
유기화학	2	0.8	2	1.0	2	0.9	1	0.6	1	0.6	1	0.7
의약품·약물	1	0.4	1	0.4	1	0.4	1	0.5	1	0.6	1	0.7
펄프	-	-	-	-	1	0.2	2	0.6	1	0.3	2	0.6
구리	1	0.8	1	0.7	1	0.6	1	0.5	1	0.4	1	0.5
합성수지	2	0.6	2	0.6	3	0.9	2	0.7	1	0.4	1	0.4
합성원료	2	0.8	1	0.5	1	0.4	1	0.4	1	0.3	1	0.4
진주, 보석	-	-	1	0.3	2	1.6	1	0.4	1	0.5	1	0.4
송배전설비	1	0.3	1	0.4	1	0.4	1	0.4	1	0.4	1	0.3
기타화학제품	1	0.3	1	0.3	1	0.3	1	0.4	1	0.4	1	0.3
전지	1	0.3	1	0.4	1	0.4	1	0.4	1	0.4	1	0.3
화장품	-	-	-	-	-	-	-	-	-	-	1	0.3
합성고무	-	-	-	-	-	-	-	-	-	-	1	0.3
방송기기	1	0.5	1	0.7	1	0.5	1	0.6	1	0.4	1	0.3

주: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함.

자료: K-stat 중국통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2018년 발표된 일련의 관세 인하 조치 항목을 대상으로 중국 수입 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품목별 수입 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연료용 목재)의 평균 수입탄력성이 가장 높게(3.00) 나타남(그림 8 참고).<sup>33)</sup>
- World Bank에서 발표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중국의 품목별 평균 수입탄력성은 에너지(3.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운송장비(2.05), 나무·대나무·등제품(1.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중국의 품목별 평균 수입탄력성



자료: WITS(<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 K-stat 중국통계; 관세 인하 문건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8. 28).

- 또한 관세 인하 조치 항목의 평균 예상 수입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기타제조품, 에너지, 의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 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자동차 및 부분품임.<sup>34)</sup>
- 이번 조치로 2018년 기타 제조품의 수입액은 2017년 대비 17.5% 증가가 예상되며, 에너지(12.3%), 의류(10.6%)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세부 항목별로는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HS 85163200(62.2%)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HS 20060090(57.7%), 금속제품에 해당하는 HS 73242900(53.08%)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또한 제약적인 상황에서 관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액의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은 자동차 및 부분품으로 2017년 대비 7.3% 증가한 807.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비철금속은 133억 달러(8.6% 증가), 의류 73.5억 달러(10.6%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9, 10 참고).
  - 2018년에 발표된 일련의 관세인하 조치로 인해 자동차 및 부분품의 수입이 2017년 752.4억 달러(전체 수입 중 4.2%)

33) World bank에서 발표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품목별 평균 수입탄력성을 도출함. 평균 수입탄력성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특정 품목의 수입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이를 조정(품목별 수입탄력성이 3 이상인 경우 3, 그 이하인 경우 고유의 값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품목별 수입 증가효과를 검토함. 또한 이번 관세 인하 조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수입탄력성을 발표하지 않거나 수입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여 분석함.

34) World bank의 HS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중국의 관세 인하 조치 효과를 분석하는데 다음의 한계가 존재함. 첫째,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국별 HS코드별 수입탄력성을 계산할 때 고려된 사항(HS 코드별 포함된 품목 수 등)의 현실적 고려가 어려운 한계를 인식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둘째, 중국 정부에서 2018년 발표한 모든 관세 인하 조치가 2018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2017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세율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 예상 수입증가율과 예상 수입액을 계산함. 셋째, 수입탄력성이 발표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여 분석함에 따라 관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에서 2018년 55.2억 달러가 증가한 807.6억 달러, 비철금속의 경우 122.8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 증가한 133.4억 달러, 의류의 경우 66.4억 달러에서 7.1억 달러 증가한 73.5억 달러로 예상된다.

그림 9. 중국의 품목별 최종수입액(예상)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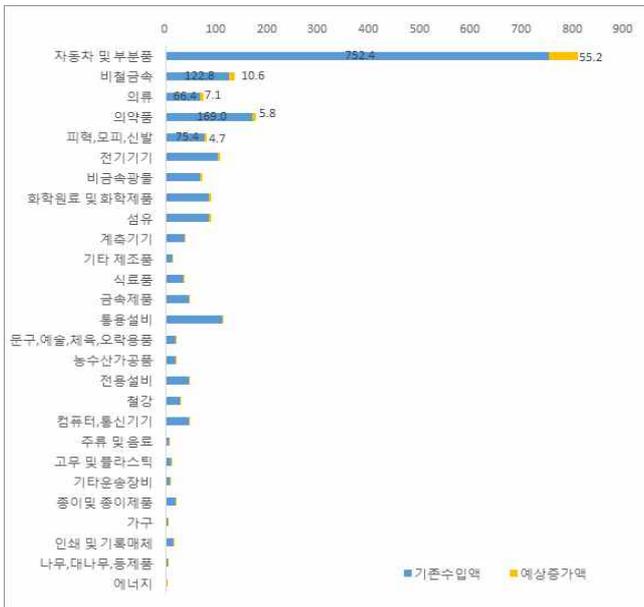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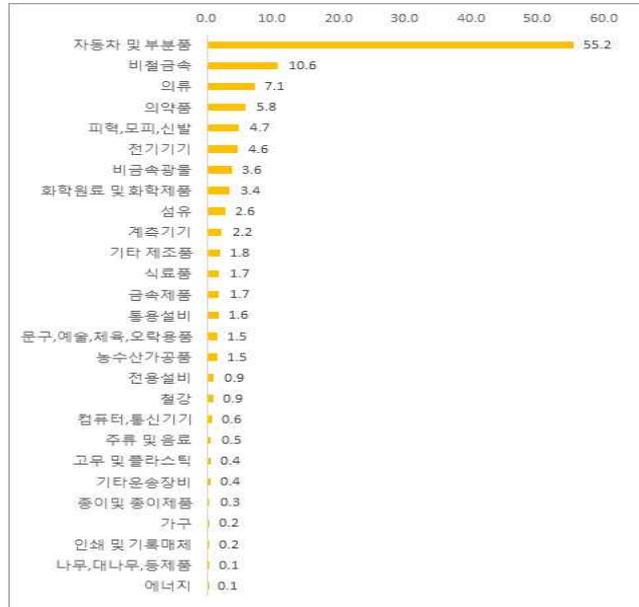


그림 10. 중국의 품목별 수입증가액(예상)

(단위: 억 달러)



자료: WITS(<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 K-stat 중국통계; 관세인하 문건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8. 28).

## 2) 대한민국 수입

■ 한국은 2013년 일본을 추월하여 중국의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올라섰으며 이후 9~10%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감소했던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2017년 들어 전년대비 11.7% 증가한 총 1,772억 6,9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점유율은 9.9%로 전년대비 0.5%p 하락함.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의 상위 50개 품목(HS 6단위 기준)은 전체 대한민국 수입의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반도체<sup>35)</sup>의 비중 및 품목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중국의 대한민국 반도체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 30%선을 상회한 이후 2017년에는 38.1%까지 점유율이 확대
- 반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CD<sup>36)</sup>의 경우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 2012년 12.9%에서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6.4%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의 국내 LCD 생산 육성 및 발전전략

35) HS 854231(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컨트롤러), HS 854232(메모리 반도체), HS 854233, HS 854239, HS 854140, HS 854190 포함.

36) HS 901380(LCD, 광학기기 및 기구), HS 901390(LCD, 광학기기 및 기구 부품), HS 900120 포함.

추진의 결과로 중국 내 자급도 상승에 따른 대세계 수입량 감소에 기인<sup>37)</sup>

- 2012년 8.7%였던 중국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은 2015년 15.8%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0.5%, 2017년 24.8%까지 상승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015년 38.9%에서 2016년 36.9%, 2017년 33.2%까지 하락<sup>38)</sup>

표 6.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 상위 50개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품목 수	비중										
<b>총합계</b>	<b>50</b>	<b>73.9</b>	<b>50</b>	<b>74.1</b>	<b>50</b>	<b>75.1</b>	<b>50</b>	<b>75.3</b>	<b>50</b>	<b>74.5</b>	<b>50</b>	<b>76.3</b>
반도체	6	25.3	6	26.6	6	27.3	6	33.9	6	34.3	6	38.1
LCD	3	12.9	3	11.0	3	9.8	3	10.0	3	8.9	3	6.4
유기화학	5	4.6	6	5.7	5	5.4	5	4.6	5	5.1	5	5.9
무선통신기기	2	5.7	2	6.4	2	5.4	2	5.4	2	5.6	2	5.1
석유 및 석유제품	4	6.5	4	5.5	4	4.6	3	3.2	5	3.7	4	4.1
합성수지	5	2.9	5	2.8	6	2.9	5	2.5	5	2.5	6	2.8
자동차부품	4	2.5	4	2.4	4	2.5	4	2.7	4	3.2	4	2.2
전자공업기계	-	-	1	0.5	2	0.8	3	1.5	2	1.1	3	1.9
전자부품	2	2.2	2	2.3	2	2.0	2	1.8	2	1.7	2	1.7
컴퓨터부품	1	1.0	1	1.0	1	1.6	1	1.6	1	1.5	1	1.4
컴퓨터	1	1.1	1	1.4	1	1.3	1	1.6	1	1.2	1	1.1
화장품	-	-	-	-	-	-	1	0.4	1	0.6	1	0.8
유리	-	-	-	-	-	-	-	-	1	0.4	1	0.6
무기화학	1	0.3	-	-	1	0.4	1	0.5	1	0.7	1	0.6
방송기기	1	1.1	1	1.2	1	1.1	1	1.2	1	0.5	1	0.6
일반계측기기	1	0.2	1	0.3	-	-	1	0.2	2	0.5	2	0.6
플라스틱제품	3	1.0	2	0.8	2	0.7	2	0.7	2	0.6	2	0.5
기타화학제품	1	0.5	1	0.6	1	0.6	1	0.6	1	0.7	1	0.5
구리제품	1	0.7	1	0.6	1	0.4	1	0.5	1	0.4	1	0.4
합금강판	-	-	1	0.3	1	0.4	1	0.4	1	0.5	1	0.4
안경	1	0.6	1	0.5	1	0.4	1	0.4	1	0.3	1	0.3
전지	1	0.3	1	0.3	1	0.3	1	0.3	-	-	1	0.2
합성원료	2	2.0	2	1.4	2	0.6	1	0.3	-	-	-	-
자동차	1	0.9	1	0.9	1	0.8	1	0.5	-	-	-	-
선박	1	0.6	-	-	1	0.3	1	0.3	-	-	-	-
전선, 케이블	1	0.3	1	0.2	-	-	1	0.2	1	0.2	-	-
철도	-	-	-	-	-	-	-	-	1	0.3	-	-
철강판	1	0.4	1	0.3	-	-	-	-	-	-	-	-
건설, 광산, 야금설비	1	0.4	-	-	-	-	-	-	-	-	-	-
진주, 보석	-	-	1	1.0	1	5.5	-	-	-	-	-	-

주: HS 6단위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 상위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함.

자료: K-stat 중국통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7) 중국의 LCD panel(HS 90138030)의 수입액은 2012년 504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302억 달러 규모로 축소됨. 2016년 LCD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어옴.

38)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술 및 시장 동향」, p. 6.

- 2017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품목은 총 7,167개(HS 8단위 기준)로 그중 39.5%에 달하는 2,829개 품목이 중국의 관세 조정 대상(3,253개)에 포함됨.
  - 관세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2,829개 품목의 2017년 대한민국 수입액은 약 139억 달러 규모로 중국 전체 수입(1,773억 달러)의 7.8%를 차지함.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중국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총 10개 품목임.
  - 그중 화장품(HS 33049900), 유리제품(HS 70031900, 70060000), 축전지(HS 85076000), 자동차 부품(HS 87089390) 등 5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20%를 상회함.
  - 화장품(HS 33049900)의 경우 2015년부터 대한민국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대한민국 비중이 24%를 넘어선 이후 2017년 기준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28.8%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
    - 해당 품목은 기존의 최혜국(MFN) 세율 6.5%에서 1.0%로 수입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5.5%)보다 세율이 낮게 조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 초 적용되던 잠정세율 2.0%보다 더 낮게 세율이 적용
  - 반면 축전지(HS 85076000)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수입 비중이 25.4%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대비 36% 감소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
    - 2017년 중국의 축전지(HS 85076000) 전체 수입은 약 33억 달러로 전년대비 6.8%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17.4% 감소

표 7. 10개 품목별 대한민국 수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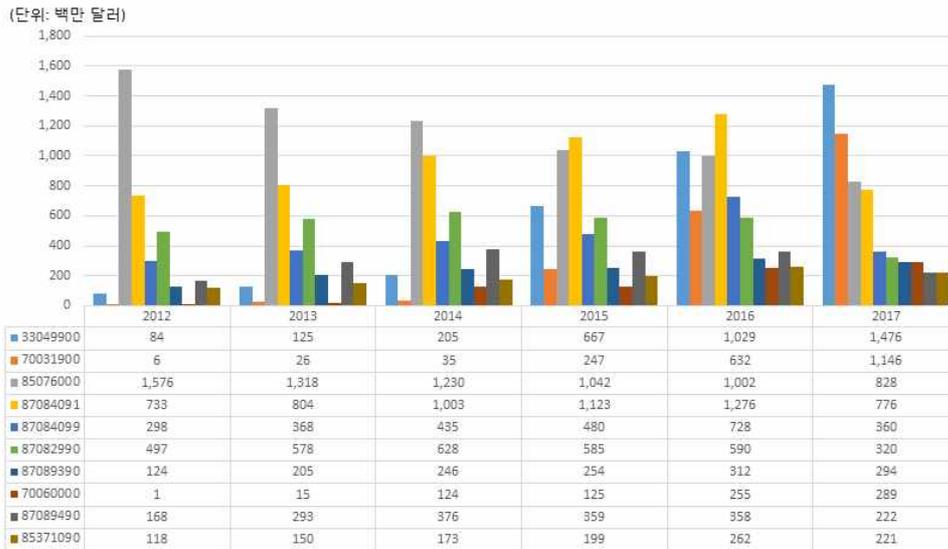
HS 연도	33049900	70031900	70060000	85076000	85371090	87084091	87084099	87082990	87089390	87089490
2008	5.7	14.8	1.9	-	7.2	4.9	15.9	15.6	19.2	7.0
2009	6.6	0.0	0.0	-	8.3	8.4	16.6	17.3	27.9	7.4
2010	6.4	3.6	0.5	-	7.0	10.3	19.5	15.4	26.9	7.6
2011	5.7	8.2	0.6	-	5.3	10.6	17.3	14.4	28.4	7.6
2012	8.4	1.7	0.1	39.7	5.8	11.4	12.3	14.2	37.5	10.6
2013	11.1	2.6	1.4	39.8	6.5	10.7	14.0	15.2	46.5	16.7
2014	10.7	3.0	12.7	36.0	5.9	12.0	12.9	14.8	42.1	19.0
2015	24.5	20.1	14.5	31.6	7.2	17.4	15.2	15.5	44.0	19.3
2016	28.7	40.9	21.9	32.8	8.3	18.3	17.3	15.4	43.7	19.4
2017	28.8	53.1	24.6	25.4	6.5	11.0	6.9	8.3	38.8	12.8

주: 1) 대한민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 품목(HS 8단위)을 기준으로 분석함.

2) HS 85076000의 경우 대한민국 및 전세계 수입 데이터가 2012년부터 제공됨.

자료: K-stat 중국통계 및 중국 관세인하 문건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 10개 품목별 대한민국 수입액 추이



- HS 33049900: Beauty, make-up, skin-care incl. suntan, nes
- HS 70031900: Cast glass sheets non-wired nes
- HS 85076000: Lithium-ion electric accumulators
- HS 87084091: Automatic gearshift for saloon cars for vehicles of 87.01 to 87.05
- HS 87084099: Other Gear boxes & parts nes for vehicles of 87.01 to 87.05
- HS 87082990: Other parts/accessories of bodies nes for vehicles of 87.01 to 87.05
- HS 87089390: Other clutches & parts nes for vehicles of 87.01 to 87.05
- HS 70060000: Glass of 70.03, 70.04, 70.05 bent, edge-worked etc not framed etc
- HS 87089490: Other steering wheels/columns/boxes & parts nes for 87.01 to 87.05
- HS 85371090: Boards/panels/bases for elec contrl/distribut nes, voltg≤1,000 V

주: 대한민국 수입 상위 100개 품목 중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 HS 8단위 기준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K-stat 중국통계 및 중국 관세 인하 문건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한·중 양국은 FTA 협정국가로 이번 관세 인하 조치 대상 품목(3,253개) 중 1,395개 품목(한·중 FTA 세율≤조정 MFN 세율)이 세율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음.<sup>39)</sup>

- 이에 전체 인하 조치 항목 중 최혜국(MFN) 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이 높은 항목(1,664개)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영향을 확인함
- 총 1,664개 품목 중, 대한 수입 코드가 없는 항목(266개)과 수입탄력성이 없는 항목(35개)을 제외한 1,363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함.

■ 2018년 발표된 일련의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대한(對韓) 수입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농수산물·공품 품목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증가액은 자동차 및 부분품 품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발표된 관세인하 조치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가정하에 2018년 대한민국 수입증가율은 농수산물·공품 (9.8%), 기타 제조품(8.0%), 피혁, 모피, 신발(5.6%)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제약적인 상황에서 관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수입액의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 및 부분품으로 2017년 대비 4.6% 증가한 28.54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이 18.0억 달러(3.0% 증가), 전기기기 3.1억 달러(4.5%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12, 13 참고).
- 2017년 기준 관세 인하 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대한민국 수입은 약 27.27억 달러(전체 대한 수입 중 1.5%)로 2018년에는 1.27억 달러가 증가한 28.54억 달러로 예상되며,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의 경우 17.95억 달러에서 0.52억 달러 증가한 17.95억 달러, 전기기기의 경우 3.00억 달러에서 0.14억 달러 증가한 3.14억 달러로 예상됨.

39) 총 3,253개 품목 중 1,395개를 제외한 나머지 194개 품목은 한·중 FTA 세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 12. 중국의 대한민국 품목별 최종수입액(예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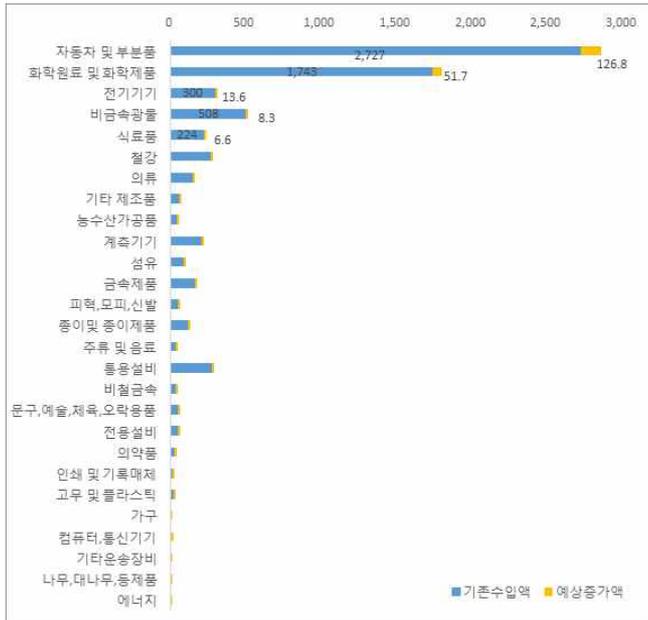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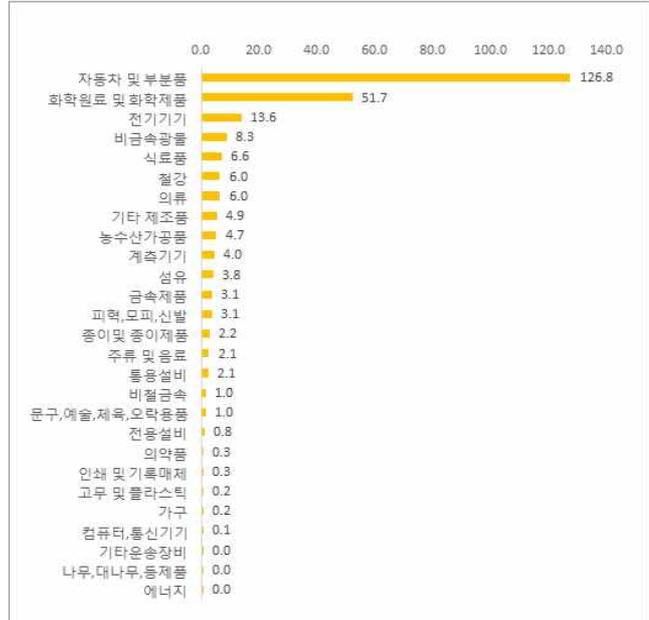


그림 13. 중국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증가액(예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TS(<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 K-stat 중국통계; 관세 인하 문건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8. 28).

## 나. 한·중 FTA 효과성 검토

■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 이후 한국과 중국은 2017년 1월과 2018년 3월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 하였으며 2018년 3월과 7월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진행함.

- 2015년 FTA 체결 당시 한국과 중국은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 약 90%의 자유화율을 달성함.
  - 한국 측은 품목 수 기준(11,272개) 92.2%, 수입액 기준(736.4억 달러, 2012년 기준) 91.2%의 개방도 구성, 중국 측은 품목수 기준(7,428개) 90.7%, 수입액 기준(1,417.4억 달러, 2012년 기준) 85.0%의 개방도<sup>40)</sup> 달성
- 발효 4년차를 맞은 2018년에는 한·중 FTA 후속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과 7월 서비스와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최함.
  - 2018년 3월 한국 서울에서 한·중 FTA 제2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하여 향후 협상의 원칙과 적용범위, 협상의 구조와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7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제2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하여 양국간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 약 90%의 자유화율을 달성했던 한·중 FTA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이번 1,688개 소비재 관련 품목 및 1,585개 공산품 외 품목의 최혜국(MFN) 세율 조정 조치에 따른 향후 영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2018년 들어 대폭 조정한 소비재, 공산품 및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입관세율과 2018년 한·중 간 FTA 적용세율을 비교 해보면 세율 인하 대상의 51.2%에 해당하는 1,660여 개 품목의 협정세율이 중국의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높게 나타남.

40)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홈페이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

- 의약품 28개, 소비재 1,449개, 자동차 관련 218개, 공산품 외 1,585개로 총 3,280개 품목에서 의약품과 소비재 중복 품목 27개를 제외한 총 3,253개 중 한·중 FT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은 1,664개 품목으로 나타남.
- 조정된 최혜국(MFN)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 0.1%에서 최대 28.0%까지의 세율차이를 보이며,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총 215개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1,664개)의 약 12.9%를 차지함.

그림 14. 한·중 FTA 세율과 조정 MFN 세율의 비교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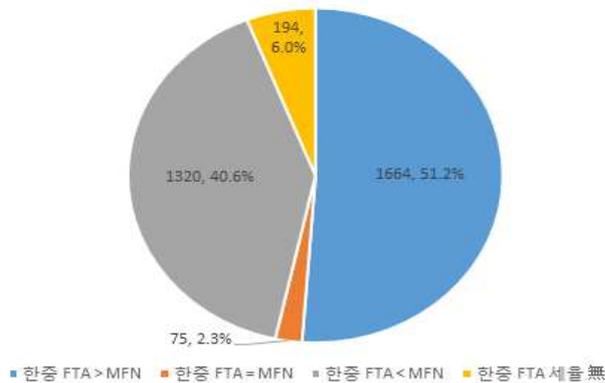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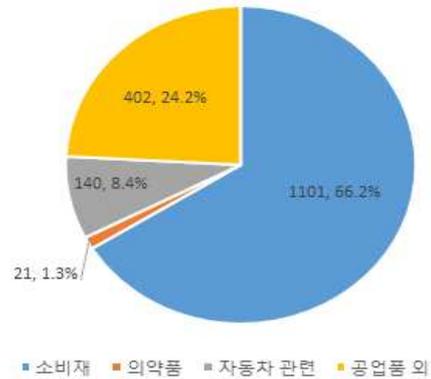


그림 15. 한·중 FTA 세율 > 조정 MFN 세율 품목

(단위: 개, %)



주: 한·중 FTA 세율은 2018년 기준 적용 협정세율을 의미함.  
 자료: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关于降低药品进口关税的公告」;  
 한·중 FTA 양허안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한·중 FTA 세율은 2018년 기준 적용 협정세율을 의미함.  
 2) 21개 의약품은 소비재에서 분리하여 비교함.  
 자료: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关于降低药品进口关税的公告」;  
 한·중 FTA 양허안 활용하여 저자 작성.

■ 7월 인하 조치를 통해 수입관세율이 한·중 FTA보다 낮게 조정된 품목은 각 조치별 전체 품목 수의 60~70%를 차지한 반면, 11월 인하조치는 1,585개 품목 중 402개(25.4%)만이 한·중 FTA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의약품] 최혜국(MFN) 세율이 모두 0%로 조정됨에 따라 한·중 FTA 세율보다 관세율이 낮아진 품목은 총 21개로 전체 조정 품목 수의 75%를 차지함.
  - 관세 조정이 이루어진 의약품(HS 3004) 중 암피실린(Ampicillin), 아목시실린(Amoxycillin), 페니실린5, 세프트락심(Cefotaxime), 세프테졸(Ceftezole), 재조합 인슐린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이 한·중 FTA 협정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 전체 27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이 0%로 일괄 조정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세율(1.0~3.6% 부과) 효과가 사라지게 됨. 예를 들어 기타 세팔로스포린(HS 30042019)의 경우 한·중 FTA에 따른 수입 세율은 3.6%이지만 조정된 최혜국(MFN) 세율은 0%이기 때문에 협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의 의미가 약화
- [소비재] 의약품 27개를 제외한 1,421개 중 77.5%에 달하는 1,101개 품목의 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게 나타남.
  - 그중에서 관세 조정 후 최혜국세율과 한·중 FTA 세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품목은 전기기기(HS 8516, HS 8450, HS 8418, HS 8509, HS 8510), 기계설비(HS 8419), 귀금속(HS 7113, HS 7114, HS 7116, HS 7117), 정제차(HS 2101), 컴퓨터 및 통신기기(HS 8528) 등으로 20%p 이상의 차이가 존재

- [자동차 관련] 218개의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품목 중 64.2%에 달하는 140개 품목에 대한 조정 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아짐.
  - 한·중 FTA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품목들은 HS 8702 6개, HS 8703(사람 수송용 자동차 및 기타 차량) 58개, HS 8704 3개, HS 8706 5개, HS 8707 3개, HS 8708(8701~8705호의 부품과 부분품) 65개이며 그중 FTA 세율과 MFN 세율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HS 8708 4개)으로 14%p의 차이를 보였고 HS 8703(40개)도 10%p의 격차가 존재
- [공산품] 1,585개 품목 중 24.2%에 해당하는 402개 품목의 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게 나타남.
  - 최혜국(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비철금속(HS 7640, HS 7612), 기계설비(HS 8419), 전기기기(HS 8415, HS 8510, HS 8516), 귀금속(HS 7115), 컴퓨터 및 통신기기(HS 8522) 등은 10%p 이상의 세율 차이가 존재

■ 또한 2017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품목 총 7,167개 중 관세 조정범위에 포함되는 품목은 39.5%에 해당하는 2,829개 (HS 8단위 기준)이며 그중 한·중 FTA 세율의 적용범위에 있는 품목은 2,747개임.

- 한·중 FTA 세율이 조정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거나 같은 품목은 협정세율 적용범위 2,747개의 56.1%에 해당하는 1,540개이며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낮은 경우는 1,207개임.
- 1,540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류 및 식물 제품으로 총 28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섬유제품 177개, 농수산물가공품 130개, 자동차 및 부품·부분품 114개, 전기기기 106개 품목 등이 해당됨.

■ 2018년 최혜국(MFN) 세율이 조정된 품목 3,253개 중에서 한·중 FTA 세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총 1,664개로 그중 410여 개 품목의 MFN 세율은 2027년 품목별 한·중 FTA 세율보다 낮은 수준임.

- 조치에 따라 조정된 세율을 한·중 FTA 연도별 적용세율과 비교해볼 때, FTA 세율보다 최혜국(MFN) 세율이 낮은 품목이 2018년 현재 1,664개이지만 19년 후인 2027년에도 400개가 넘는 품목이 있어 FTA 체결로 기대되는 세율효과의 축소가 간접 예상됨(표 8 참고).
- 더불어 중국 수입에서 한·중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중국과 FTA 및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표 8. 2018년 조정 MFN 세율과 한·중 FTA 연차별 세율 비교(품목 수)

(단위: 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Total	1,664	1,362	952	722	608	546	518	494	424
FTA ≤ MFN	302	410	230	114	62	28	24	70	11
FTA > MFN	1,362	952	722	608	546	518	494	424	413

주: 2018년 중국의 조정 수입관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큰 1,664개 품목에 대해 한·중 FTA 연차별 적용세율과 2018년 조정 MFN세율을 비교함.

자료: 저자 작성.

##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이 2018년 시행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 조정범위 확대 △ 조정방식 변화 △ 기준세율 변경 등 측면에서 이전 조치들보다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음.

- 중국정부는 2018년 초부터 다보스 포럼 및 양회 정부업무보고, 보아오 포럼, 상무회의 등에서 자동차와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를 통한 자발적 시장개방 확대 추진의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함.
- 2018년에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관세 조정 조치들에서 완성차 및 관련 부품, 의약품과 소비재, 공산품 등 3,253개 품목을 포괄함으로써 세율 조정의 품목 범위를 대폭 확대함.
  - 관세 조정 대상 품목 3,253개를 살펴보면 상위 5개 분류인 섬유, 농수산물공품, 의류, 화학원료 및 제품, 자동차 등이 50%의 비중을 차지
  - 섬유는 3,253개 중 430개 품목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농수산물공품이 10.8%(350개), 의류 9.6%(313개), 화학원료 및 제품 9.2%(298개), 자동차 7.3%(236개)의 비중을 기록
- 또한 수입관세의 조정방식 측면에서 이전 인하 조치들과 다르게 최혜국(MFN)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나 협정 체결의 기반이 되는 세율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중국은 최근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중국 경제성장에 소비의 기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최근 통상마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 및 외자의 투자 유치와 더불어 소비의 GDP 기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중국 소비의 GDP 기여율은 2015년 59.7%에서 2016년 66.5%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58.8%로 7.7%p 감소, 투자의 GDP 기여율은 2015년 41.6%에서 2016년 43.1%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7년 32.1%로 10%p 이상 하락
  - 이에 반해 상품 및 서비스 순수출은 2015년(-1.3%)과 2016년(-9.6%) 2년 연속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 9.1%로 플러스세로 전환하였으나 투자 및 소비에 비해 여전히 성장 기여율이 낮은 편
- 최종 소비재의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중·고위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중국 여행객의 해외소비는 2004년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sup>41)</sup>
  - 2018년 들어 시행된 3건의 관세 인하 조치는 기업과 소비자의 세수부담을 약 600억 위안 가까이 경감하는 한편 중국의 총 관세수준을 작년의 9.8%에서 7.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sup>42)</sup>

■ 더불어 생산수요와 관련한 중간재 및 원자재 등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시장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41) 陈芬(2017), 「进口关税再下调引导消费回流」, p. 46.

42) 中国政府网(2018. 9. 26), 「国务院出台新举措促降关税总水平」, [http://www.gov.cn/zhengce/2018-09/26/content\\_5325592.htm](http://www.gov.cn/zhengce/2018-09/26/content_5325592.htm).

- 소비재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국내수요와 생산의 구조개선 및 고도화는 물론 원자재 비용 절감, 상품의 이윤 제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수입 최종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는 높은 품질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경쟁 및 학습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
  - 중간재와 원자재 등 공산품의 수입관세 인하는 생산요소의 구조 최적화를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뒷받침
- 수입관세의 인하로 인한 시장경쟁 격화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중국정부는 경쟁력 확보 및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적절한 수준의 수입관세 인하는 해외 선진기술설비 도입과 유효공급의 확대를 통해 △ 중국의 산업고도화 △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 관련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및 공급품질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기업 스스로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추진, 품질과 효율 개선, 혁신발전을 통한 적극적 대응의 가속화 필요

■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외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수입확대를 통해 주요국 간 통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례로 미·중 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규모 수입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2018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함.
  - 주요 수입확대 품목은 민생 관련 소비제품, 서비스업 관련 제품, 기술설비 관련 제품, 농산품 및 자원성 제품 등이며, 수입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입선을 확충하는 등 전략이 시행될 예정
  - 또한 국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매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지역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범지역 조성을 적극 추진 중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의 첨단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산업기계, 소재 및 부품은 물론 ‘인터넷+’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AI, 인터넷, 빅데이터 발전의 필수 요소인 메모리 반도체와 전자직접회로 등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중국 국내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 수입에 의존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발굴과 협력의 기회 모색이 중요
  -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일본은 주로 정밀기계,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분야와 서비스 무역 분야에 기업이 다수 참여하며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sup>43)</sup>
- 더불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본 고의 분석과 같이 상품무역에서 한-중 FTA 이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43) 新华财经(2018. 11. 8), 「首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日本参展企业数最多」, <http://finance.sina.com.cn/roll/2018-11-08/doc-ihnprhzw5261486.shtml>.

- 중국의 최혜국(MFN)세율이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FTA 협정의 효과가 반감되면서 중국 수입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움.
- 한·중 FT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상품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분야 개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
  - 하지만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 개방 전에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해 일부 서비스시장에서의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의 입장에서 상품무역의 세율효과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역구조 구성을 위해 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중 FTA의 서비스 분야 후속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2015년 발효 시점에서 WTO DDA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이 되기는 했지만 양국간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며 협정에 의해 개방이 되더라도 중국 국내 규제가 실제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존재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서비스·투자 추가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중이 상호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 정비, 투자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 준비가 필요
- 한국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국제수입박람회 통해 우리의 대중 수출주력업종에 대한 수입우위를 확인하는 한편,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이 속한 산업의 수입확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기업은 2018년 11월 개최된 중국의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186개사(대기업 10개사, 중소·중견기업 176개사)가 공식 참가하여 일본(약 450개 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여<sup>44)</sup> KIEP

4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관 하에 등록 참여한 한국기업은 186개 사로 개별 참여 숫자까지 포함하면 총 273개 기업이 참가함[한국무역신문 (2018. 11. 8),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현장에 가보니」,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no=469371>].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장영석. 2007. 「중국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과 발전 방향」, 『현대중국연구』, 제12집 1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아이앤아이알앤씨. 2016. 「2016년 의약품 산업경쟁력 조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술 및 시장 동향」, 산업동향보고서.

### [중문자료]

- 陈芬. 2017. 「进口关税再下调引导消费回流」, 中国经济信息.  
 国际机车股份有限公司. 2018. 「2018年一季度中国进口汽车市场情况」.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17.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18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12. 12).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15\\_2777552.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15_2777552.html)(검색일: 2018. 7. 10).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司. 2015. 「关于调整部分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5. 21).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5/t20150525\\_1240116.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5/t20150525_1240116.html)(검색일: 2018. 7. 20).  
 -----, 2015. 「关于2016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12. 4).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t20151209\\_1604527.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t20151209_1604527.html)(검색일: 2018. 7. 20).  
 -----, 2016. 「关于2017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12. 19).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12/t20161223\\_2498029.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12/t20161223_2498029.html)(검색일: 2018. 7. 20).  
 -----, 2017. 「关于调整部分消费品进口关税的通知」, (11. 22).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검색일: 2018. 7. 20).  
 -----, 2018.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5. 22).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검색일: 2018. 7. 20).  
 -----, 2018.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5. 31).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검색일: 2018. 8. 7).

### [온라인 자료]

- KOTRA. 2015. 「아시아 최대 의약품산업 무역 플랫폼 'CPhI China 2015' 참관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43582>(검색일: 2018. 7. 20).  
 Trade Navi. 「국가별 관세 안내」,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34&natnCd=CN>  
 (검색일: 2018. 7. 20).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홈페이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검색일: 2018. 8. 7).  
 연합뉴스. 2018. 「中 영터리 백신 파동 '일파만파'...제조업체 조업중단·일제점검」, (7. 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6/0200000000AKR20180726107300097.HTML>(검색일: 2018. 8. 7).  
 연합뉴스. 2018. 「중국산 의약품 '비상등'...국내외 시장서 잇단 리콜」, (8.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9/0200000000AKR20180809090600097.HTML>(검색일: 2018. 8. 30).

- 한국무역신문. 2018.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현장에 가보니」. (11. 8).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no=46937>(검색일: 2018. 11. 11).
- 21财经. 2017. 「2017年年中国药品市场将超1.57万亿 增速回归理性」. (8. 18). <https://m.21jingji.com/article/20170818/herald/2513f73a6055aaf4d2e88b32da7ebcdf.html>(검색일: 2018. 8. 7).
- 贸易金融杂志. 2017. 「财政部12月新规:降低部分消费品进口关税」. (12. 28). <http://www.tradefinance.com.cn/?a=news&id=2845>(검색일: 2018. 7. 20).
- 人民网. 2018. 「11月1日起我国降部分商品最惠国税率关税总水平将降至7.5%」. (9. 30).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930/c1001-30323957.html>(검색일: 2018. 8. 30).
- 新浪财经. 2018. 「汽车进口关税将下行 或由25%降至15%」. (2. 3). <http://finance.sina.com.cn/roll/2018-02-03/doc-ifvz8636448.shtml>(검색일: 2018. 8. 7).
- 新浪财经. 2018. 「我国是世界第二大医药消费市场 美国为高价药的天堂」. (7. 7).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wx/2018-07-07/doc-ihexfcvk9891779.shtml>(검색일: 2018. 8. 30).
- 新华财经. 2018. 「首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日本参展企业数最多」. (11. 8). <http://finance.sina.com.cn/roll/2018-11-08/doc-ihnrhzw5261486.shtml>(검색일: 2018. 11. 11).
- 新浪汽车. 2018. 「我国汽车整车进口关税税率下调至15%车价或下降8%」. (5. 22). <http://auto.sina.com.cn/zz/sh/2018-05-22/detail-ihawmaua9014472.shtml>(검색일: 2018. 7. 20).
- 新华网. 2018. 「商务部部长钟山:中国国际进口博览会是各个国家的“大合唱”」. (3. 11).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11/c\\_1122520132.htm?baike](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11/c_1122520132.htm?baike)(검색일: 2018. 7. 20).
- 新华网. 2018. 「我国将通过5年过渡期取消汽车行业外资股比限制」. (4. 17).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17/c\\_129852493.htm](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17/c_129852493.htm)(검색일: 2018. 7. 20).
- 新华网. 2018. 「财政部:5月1日起取消28项药品进口关税」. (4. 24).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24/c\\_1122730142.htm](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24/c_1122730142.htm)(검색일: 2018. 7. 10).
- 新华网. 2018. 「中国与世贸组织白皮书」. (6. 28).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6/28/c\\_1123050189.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6/28/c_1123050189.htm)(검색일: 2018. 7. 10).
- 新京报网. 2018. 「1585个税目商品11月起降进口关税」. (10. 1). <http://www.bjnews.com.cn/finance/2018/10/01/508937.html>(검색일: 2018. 10. 1).
-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关税知识」. <http://gss.mof.gov.cn/mofhome/guanshuisi/zhuantilanmu/guanshuizhishi/>(검색일: 2018. 8. 7).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7年我国消费品进口值首次突破1万亿元」. (1. 31).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4/jcyjfxwz/jcyjfxwz39/1454464/index.html>(검색일: 2018. 7. 10).
- 中国经济网. 2018. 「2017年汽车进口超120万辆 平行进口增长近三成」. (2. 6). [http://auto.ce.cn/auto/gundong/201802/06/t20180206\\_28067075.shtml](http://auto.ce.cn/auto/gundong/201802/06/t20180206_28067075.shtml)(검색일: 2018. 7. 20).
- 中国经济网. 2018. 「我国日用消费品进口关税平均降幅55.9%」. (6. 8).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1806/02/t20180602\\_29315120.shtml](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1806/02/t20180602_29315120.shtml)(검색일: 2018. 7. 20).
- 中国会计视野. 2018. 「3年多4次降低进口日用消费品进口关税为了啥?」. (6. 10). <http://shuo.news.esnai.com/article/201806/175895.shtml>(검색일: 2018. 8. 7).
- 中国日报. 2018. 「中国将大幅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代购们着急了」. (6. 1).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8-06/01/content\\_36311405.htm](http://caijing.chinadaily.com.cn/2018-06/01/content_36311405.htm)(검색일: 2018. 8. 7).
- 中国新闻网. 2018. 「中国药品市场规模 将达1.71万亿元」. (8. 15). <http://www.chinanews.com/jk/2018/08-15/8600616.shtml>(검색일: 2018. 8. 30).

- 中国政府网. 2018. 「商务部发布调查报告显示-消费升级快 进口需求旺」. (5. 29). [http://www.gov.cn/zhengce/2018-05/29/content\\_5294364.htm](http://www.gov.cn/zhengce/2018-05/29/content_5294364.htm)(검색일: 2018. 7. 10).
- 中国政府网. 2018. 「降低进口关税,影响几何」. (6. 2). [http://www.gov.cn/zhengce/2018-06/02/content\\_5295629.htm](http://www.gov.cn/zhengce/2018-06/02/content_5295629.htm)(검색일: 2018. 8. 7).
- 中国政府网. 2018. 「国务院出台新举措促进降关税总水平」. (9. 26). [http://www.gov.cn/zhengce/2018-09/26/content\\_5325592.htm](http://www.gov.cn/zhengce/2018-09/26/content_5325592.htm) (검색일: 2018. 10. 1).
- 中国政府网. 2018. 「11月1日起我国降部分商品最惠国税率关税总水平将降至7.5%」. (9. 30).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9/t20180930\\_3033435.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9/t20180930_3033435.html)(검색일: 2018. 10. 1).
- 中国政府网. 2018.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确定推动外商投资重大项目落地、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和加快推进通关便利化的措施等」. (9. 26). [http://www.gov.cn/premier/2018-09/26/content\\_5325538.htm](http://www.gov.cn/premier/2018-09/26/content_5325538.htm)(검색일: 2018. 10. 1).

## [데이터베이스]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통계(검색일: 2018. 8. 20).
- WITS. <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검색일: 2018. 8. 28).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3-2017年度数据(검색일: 2018. 7. 20).
- 한경 경제용어사전